

하사마초 오미야 신사의 가구라

시지정 문화재(무형민속)

1995년 6월 26일 지정

전승자: 오미야 신사 가구라 악부

오미야 신사의 가구라는 야쓰의 혼고(나라시노시 야쓰)에서 전래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가구라가 시작된 연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보존되어 있는 오랜 의상이나 상자에는 ‘분큐 3년(1863)’이나 ‘안세이 6년(1859)’의 글이 적혀 있어 에도시대 말기에는 이미 가구라가 봉납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라는 1월 7일의 나나쿠사(밤), 10월 23일의 예제(밤) 때 경내 가구라전에서 봉납된다. 가구라를 전승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지코(같은 씨족신을 모시는 사람들)로 구성된 오미야 신사 가구라 악부 사람들이다.

현재 봉납되고 있는 곡목은 다음의 12개 춤이다.

①미코마이 춤, ②덴구(사루타히코), ③하치만타로(지노리), ④우스메, ⑤고카지(스미요시마이 춤), ⑥오키나, ⑦신메이(다네마키), ⑧기쓰네(덴코), ⑨진구 황후, ⑩훗토코, ⑪이비스사마(히루코), ⑫오니/쇼키(산진).

이 중에서 진구 황후는 시내에서는 오미야 신사에서만 공연되고 있는 곡목이다.

사용하는 악기와 연주자 인원은 큰북(보우치다이코 북) 1명, 작은북(시메다이코 북) 1명, 피리 3명이다.

오랜 옛날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농업이 발달했던 하사마 지역에서 오곡풍요를 기원하고 풍작을 감사하면서 독자적인 형태로 전승되어 온 개성적인 가구라이다.

2017년 3월 후나바시시 교육위원회